

유라시아교육원을 아시나요?

구 수 경

인본사회연구소 사무처장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에서 후진양성에 생을 바쳤던 이재혁 교수는 올해 8월 학교를 은퇴하였다. 퇴임을 앞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준비해 왔던 일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자리 잡은 ‘유라시아교육원’은 마치 여러 해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매우 정감 있고 친숙하였고 낯설지 않았다. 보통 인터뷰는 사업의 시작점이나 특별한 사연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질문들을 던진다. 그런 나의 질문에 돌아온 그의 답은 질문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듯하였다. “나는 뱃속부터 북방인이었소”. 마치 나의 조국을 찾겠다는 결연으로 여겨졌다. 말로 풀어보면 러시아문화를 알리고, 유라시아 외교 강화 활동으로 북한뿐 아니라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더 나아가 서유럽까지 민간사절단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에게 러시아는 마치 고향의 친구와 어머니를 뵙는 듯한 설렘이었다.

그는 백석의 시를 톡 읽어 내려갔다.

북방(北方)에서

백석(1912~1996)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扶餘)를 숙신(肅愼)을 발해(勃海)를 여진(女眞)을 요(遼)
를 금(金)을
흥안령(興安嶺)을 음산(陰山)을 아
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든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든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든 것도
썰론이 십리길을 따러나와 울든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삼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 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릇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한울로 땅으로 — 나의 태반(胎盤)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뉘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라는,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한 편의 백석의 시, 그 이상 유라시아교육원의 설립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렇게 유라시아교육원은 탄생하였다.

십수 년을 준비하고 문을 연 지 8개월, 짝 막힌 세상의 문
은 그의 입을 다물게 하였다. 향만을 둔 자연조건뿐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개방성을 갖춘 부산이라고는 하
지만 국제화를 향한 여러 사회적 시스템이나 의식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고 실망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 해운
대에는 외교부 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아시아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문화원이 있으나 북방을 향한 문화, 경

제성장에 대한 시각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에 민간사절단으로의 역할을 자처하며 문을 연 유라시아교육원은 월세부터 운영비까지 스스로 부담하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간사 한 명을 두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팩스 보내는 것부터 사업의 큰 구상을 기획하고 실행하기까지 모두 자신의 손길이 거친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길일지 몰랐기에, 나의 걱정되는 물음에도 “뭐 해봐야지요” 웃으며 답했다.

이재혁 원장은 요즘 특히 마음이 쓰이는 일이 있다. 그것은 ‘소월’을 만나고부터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잠시 읊조리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 대한민국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달래꽃의 저자 소월은 평안북도 출신이다. 소월은 19세부터 24세까지 단 5년간 그의 주옥같은 글을 배태한 천재이며 한국문학의 기라성임에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제대로 된 그의 문학비 하나 없다는 것에 개탄한다.

러시아의 국민시인들은 곳곳에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세워져서 국민의 시
적 정서를 드높인다.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알렉
산더 푸시킨의 이름을 딴 박물관은 16개가 있으며 그의 문학
비는 100여 개 이상이다. 멕시
코, 스페인, 칠레 등의 국가들
도 마찬가지다. 소월의 출생지
가 북한이라면 더욱 대한민국



에 그의 문학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글이나
어떤 형태로 고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
한 정서와 감흥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연결된다. 그게 바로 문
화예술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비록 역사적 아픔으로 남북이 분단되었으나 북한과 우리
는 한민족이다. 한반도 압록강 중류의 독로강과 동가강 일
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고구려와 그를 위시하던 요동군,
부여군이 모두 우리민족의 흐름이다. 북방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되찾는 것이며, 통일을 향해가는
길이며, 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유라시아교육원의 앞으로의 계획은 통일을 향한 커뮤니티

를 형성하여 남북통일에 일조하고 북방의 철학, 문학, 예술, 문화의 교량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북방의 문화를 탐방하고 문화교류를 하는 것이다.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한국학 교육을 시도하고 네트워킹 중이며, 향후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식량 문제 등 기울어져 가는 국가 문제들의 대안을 북방에서 찾아낼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 기업에 용기를 주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순진무구한 시골뜨기 같은 그의 차분한 미소 안에 국제도시 부산의 미래가 풍성하다. **인본세상**

